

호매칼럼



김명화 /교육학박사·동화작가

“겨울이면 땀한 바람을 만나고 싶어. 시린 바람 있잖아. 그 시린 바람 앞에 서면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지. 너도 그러니. 너와 함께 겨울 강가에 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걸 확인해보자.” 겨울을 좋아하는 지인과 경기도가 평까지 자동차로 달린 이유다. 광주에서 경기도 가평 강씨봉까지는 5시간 30분 정도 걸렸다. 그 먼 곳까지 간 이유는 차가운 바람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가평의 겨울은 충분히 우리를 감싸 안았다. 영하의 온도에 단단히 옷을 입고 산길을 걷는 강씨봉은 우리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했다. 강씨봉은 명지산 자락에 있는 곳으로 궁예와 관련이 있다. 강씨봉은 궁예가 자신에게 직언하던 부인 강씨를 유배시켜 강씨봉 마을이라 유래되었다. 궁예는 모든 것을 잃고 강씨봉에 유배시킨 부인을 찾아 왔으나 이미 부인은 죽고 없었다.

나라와 조강지처를 모두 잃은 궁예는 이곳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잠시 생각해 잠겨본다. 가평 강씨봉 휴향림을 걷는 시간, 이른 아침 커피 한잔은 최상의 선택이었다. 하루에 한잔의 커피를 땀한 공기와 마시고 싶었다. 이렇게 맑고 시원한 공기를 언제 다시 말으려나 가평에서 새해 시작은 23년도 절반의 성공이다. 누구나 주체적으로 산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자기 주도적인 삶이 행복한 삶이다. 강씨봉 산책은 새해 선물이다. 광주보다 더 적게 내린 눈은 다행히 가평의 차가운 날씨 덕에 겹겹이 설산이 되어 우릴 반갑게 맞아주었다. 겨울 산에서 새해 계획을 세워보았다. 삶에 지쳐 그동안 저만큼 던져 놓았던 23년도 삶의 설계를 다시 짤아 들었다. 계묘년 토끼해에는 점프의 해다. 토끼는 강충강중 된다. 영리한 토끼

는 세 개의 꿀을 파는 것도 지혜롭다. 멋진 도약을 위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당신의 지혜로움이 23년도에는 새로운 세계로 안내할 것이다. 새해에는 당신이 주인공이다.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고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탐색하고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평균 실종’ 단어를 발견했다. 평균이 기준이 되었든 시대가 사라진 사회를 말한다. 코로나 19, 4차산업혁명, 치솟는 물가 등으로 세상은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양극화, N극화, 단극화가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평균 실종의 시대에는 자신이 기준이 된다. 개인의 가치가 중요해지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그 이전에 사고, 생

각, 관례가 바뀌고 있다. 이에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깊은 탐색이 필요하다. 자신을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기에 만다라트(만다라와 아트)가 통해 목적을 달성하는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다. 이를테면 연꽃 만개법이다. 이 기법은 일본의 마츠무라 야스오가 개발했으며 연꽃이 피는 모습과 비슷하여 연꽃 만개법이라 불리기도 한다. 가운데 키워드를 적고 자신이 성취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만다라트는 정사각형 아홉 개의 상자가 아홉 개의 네모를 가지고 있다. 아홉 개의 네모 안에 제일 가운데 자신의 핵심 목표를 적고 이를 위해 실현되어야 할 것을 적어가면서 자신의 계획을 정리해보는 것이다. 정 중앙에 아홉 개의 단어가 다시

열로 퍼져나가며 자신의 계획이 어떤 개로 확장되며 계획이 구체적으로 설계되고 실현되는 활동이다. 만다라트를 계획할 때는 모든 공간이 다 채워지지 않아도 된다. 채워진 공간이 다른 공간으로 확장되면서 자신의 목표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어봄으로써 내가 목표했던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활동이다. 최근 문구점에 오는 방문객이 늘었다고 한다. 이는 달력, 다이어리, 수첩, 메모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다. 스마트폰에 자신의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직접 손맛을 느끼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문구용품으로 또 박박박 눌러 쓴 경험을 맛보는 것도 해볼 일이다. 새해 계획 세우셨나요? 나를 알고 삶의 깊이를 알아보는 것은 내 삶을 내가 챙기기 위함이다. 바로 당신이 삶의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 본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주택용 소방시설, 안전 선물하고 인심을 받으세요



김석운 /보성소방서장

장기화된 코로나19 등으로 지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줄 고유의 명절인 설이 다가왔다. 희망찬 새해를 기대하며 맞이하는 설을 편안하게 쇠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안전이다. 이번 설에는 가족과 주변 지인들에게 안전을 선물하고 인심을 받는 것은 어떨까? 설을 맞이해 누구나 한 번쯤 설 명절 선물로 무엇을 할까 고민해 봤을 것이다. 필자는 가격 부담 없고 가정의 안

전을 위해 꼭 설치해야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적극 추천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구성된 기초 소방시설이다.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에 있어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을 가지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시 발생 되는 연기를 감지해 음향 장치로 화재 사실을 알리는 중요한 기초 소방시설이다. 우리도 최근 10년간 화재를 살펴 보면 전체 화재 2만 5814건 중 주거 시설에서의 화재가 21.6%(5576건)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통계자료로 보았을 때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겨울은 낮은 온도와 건조한 날씨, 강풍 등으로 인해 다른 계절에 비해 화재 발생과 인명피해 건수가 많은 편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선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고 적절히 유지 관리하며 올바른 사용법

도 알아야 한다. 소화기는 1가구당 1개, 경보기는 구획된 공간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이에 보성소방서에서도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대형 전광판을 활용하

는 등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에 힘쓰고 있다. 올해 설에는 무슨 선물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지 말고 소중한 가족과 이웃을 위해 안전을 선물하고 인심을 받아, 아파 받는 기쁨과 주는 기쁨이 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소방차 전용구역 항상 비워주세요



김재혁 /여수소방서 여서119안전센터

아파트를 잘 살펴보면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이 확보되어 있다. 아파트 중에서 지하 주차장이 없고 지상주차장으로만 구성된 공동주택의 경우엔 주차장의 규모가 작아 주차난으로 인해 이중주차가 된 경우가 많다. 아간의 경우에는 소방차 전용구역

까지 주차가 되어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3층 이상의 기숙사 등 공동주택에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전용구역 내 주차, 물건 적치 및 노면 표시 훼손 등 소방차 진입을 방해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하나의 전용구역으로 여러 동에 접근이 가능할 때는 예외가 인정된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노란색 네모박스로 표시해 맨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전용구역 내 물건 적재·불법주차 시 단계별로 50만 원에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

으며 노면표지 훼손의 경우도 방해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신고 가능 대상은 2018년 8월 10일 이후에 주택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 대상부터 소방차 전용구역 내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방해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작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소방차 전용구역 내 불법 주차 행위에 대한 차량의 신고가 가능해졌다. 위반행위를 신고할 때는 동일한 위치·방향에서 차량 전면 또는 후면을 2장 이상 첨부해야 한다. 사진 2장의 시차는 5분 이상이어야 하고 법규 위

반 당일 촬영한 사진만 유효하다. 모든 신고 사전에 소방차 전용구역(노면 표시), 전용구역 위치를(특정적인 구조물 표시) 식별할 수 있도록 촬영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위반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단속요건이 아닐 경우 과태료는 미부과된다. 또한, 안전신문고 앱에서 촬영한 사진은 암호화 후 저장하여 사진 위·변조가 불가하다. 공동주택에서는 화재 발생 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1분, 1초가 중요한 만큼 꼭 소방차 전용구역을 항상 확보하고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다.

기사제보,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전화(062)363-8800 팩스(062)362-0078. 호남매일 www.homae.co.kr. 발행·편집인 고계방 주필 서길원 편집국장 최춘의. 대표전화 (062)363-8800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동 264-번지). 사장실 (062) 363-0027 편집국장 (062) 363-8800. 광고국 (062) 363-0005 정·경부 (062) 362-6116. 편집국(FAX) (062) 362-0078 사회부 (062) 362-6226. 서울취재본부 (02) 783-8117 문체부 (062) 362-6116. 인쇄취재본부 (062) 943-0140 지역사회부 (062) 362-6226. 구독료 연달: 10,000원 /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새 희망 새 언론 새 천년



푸른 언론의 길을 지향하는 호남매일과 같이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 호남인과 함께 하는 신문
• 정도를 걸어가는 신문
• 공익을 생각하는 신문

- ▶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 (062)363-8800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 264-1)
▶ 기사제보 · 독자투고 · TEL : (062) 363-8800
• FAX : (062) 362-0078
▶ 광고문의 • TEL (062) 363-0005
▶ 서울지사(취재본부) : 010-8803-1472
▶ 인터넷 참여 : http://www.homae.co.kr
▶ E-mail : honamnews@hanmail.net
honamaeil@naver.com

Table with 3 columns: 지국안내 (Local Office), 지사안내 (Branch Office), and contact numbers for various regions like 서울, 광주, 대구, 부산, etc.